2026년 3월 9일 | Global Macro Strategy

주간 하나채권

공급 충격에 인상 대응은 상상하기 어려워

Fixed Income

국채 투자의견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미국			■	●	

주: 3월 4일 기준. ●는 직전 전망

Weekly Viewpoint

지난주 **글로벌** 금리가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금 가격마저 하락하는 등 유가와 달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도 부진한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시장 전반의 디레버리징을 강요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호한 성장 기대도 금리 상승 폭을 더 키웠다. 미국(ISM 호조), 한국(반도체 수출 호조) 국채 10년 금리는 약 20bp 상승한 반면 최근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본 10년 금리는 상승 폭이 6bp에 그쳤다. 한편 물가 리스크가 중기물(성장률 리스크는 장기물)에 더 크게 반영되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5년 만기 전후의 금리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오늘(3/9)은 WTI 유가가 당사의 워스트 시나리오인 $120에 가까워지면서 금리가 추가로 급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2월 고용 부진이 확인되자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연준의 월러 이사는 유가의 인플레이션 충격은 일시적이며, 고용 약화가 지속되면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다. 현재 BEI 10년이 2.4%를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 돌파할 경우 인하 기대가 급격히 축소될 위험이 상존한다. 유가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당분간은 매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피하다. 10년 금리의 적정 레인지는 4.00%~4.25%로 제시해왔으나 단기적인 리스크는 위쪽으로 열려 있다. 다만 미국은 2월 고용 부진이 확인됐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안정적이며, 이란 사태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금리 급등 리스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제한적일 것이다.

한국 현재(3월 9일 12시) 3년 금리가 3.4%를 넘어섰다. KOSPI는 약 8% 급락했고, 달러원 환율은 1,500원에 근접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물가에 큰 충격이 불가피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다만 AI 주도의 반도체 사이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교적 면역력이 강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올해 Capex 컨세서스는 3월 들어서도 소폭 증가했다. 따라서 유가 폭등의 성장률 영향보다 물가 영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국고 3년 3.4%는 기준금리 대비 90bp로 당장 다음 회의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레벨이다. 다만 공급 충격에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내수 침체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므로, 한국은행이 당장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 '코스피 폭락 → 환율 급등 → 금리 상승'과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리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 등의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공급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국고 3년은 추가 급등보다 안정이 예상된다 (상반기 3.2%, 하반기 3.0%). 다만 이란 사태 불확실성과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해 금리 급등에도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주간 이슈 | Weekly Focus

채권시장을 움직인(일) 주요 이슈들을 점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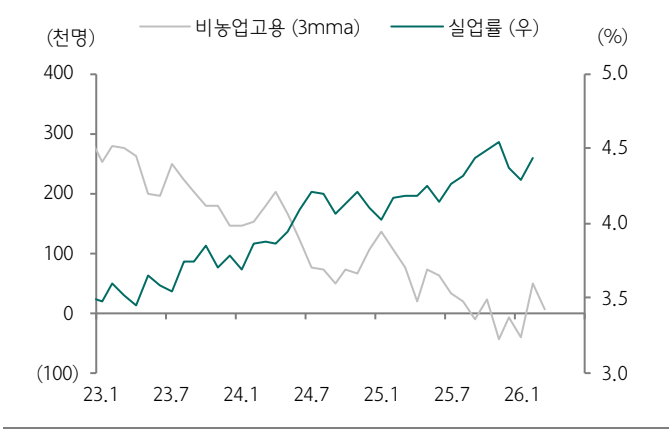
1-1. 미국 2월 고용 상황 보고서

1. 미국 2월 비농업고용: -92k로 크게 부진. 다만 전반적인 둔화 추세는 완만

2월 BLS의 실업률은 4.44%로 전월 대비 0.15%p 상승했고, 비농업고용은 -92k로 예상(+60k)을 완전히 빗나갔다. 고용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0.1%를 하회하면서 둔화 추세가 지속됐다. 직전 2개월 수치도 총 70k 하향되어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은 6k에 불과했다. 경기민감/둔감 산업의 3개월 평균 고용도 -17k/23k로 회복 조짐은 미약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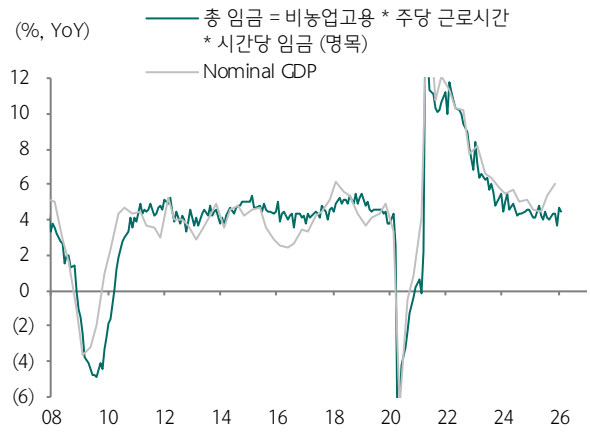
다만 비농업고용이 순감한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명목 총 임금 증가율도 전년동월비 +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 부진에도 근로시간과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지면서 고용 둔화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에 비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완만한 둔화 추세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도표 1. 미국 비농업고용과 실업률
: 고용 부진 지속. 실업률 반등



자료: BLS, LSEG, 하나증권

도표 2. 총 임금 증가율과 GDP 성장률 (명목)
: 근로시간/임금 증가가 고용 부진 상쇄



자료: BLS, LSEG, 하나증권

1-2. 트루플레이션

2. Truflation: CPI를 2개월 선행해 디스인플레이션 시사. 유가 상승은 단기적 리스크

자세한 내용은 '트루플레이션(Truflation) vs CPI'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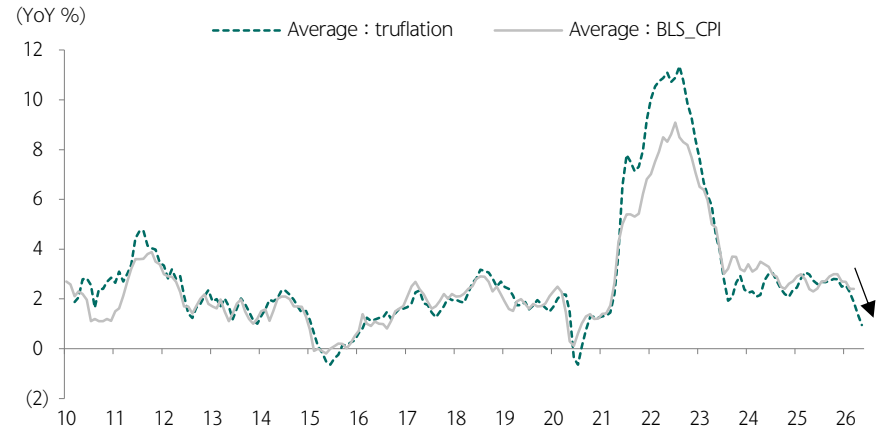
트루플레이션(Truflation)은 디지털 API와 웹 스크래핑을 통해 매일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트루플레이션은 BLS의 CPI 상승률을 약 2개월 선행한다. 작년 4분기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1%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시사하고 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기적으로 트루플레이션 지수의 반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 측 요인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수요를 둔화시키므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주유비 및 난방비 가격 상승은 '비자발적 세금'과 같다. 이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외식, 여행 등 재량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물가 반등 여부와 함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의 마진 압박과 수요 둔화 리스크에도 주목해야 한다.

도표 3. 트루플레이션은 CPI를 약 2개월 선행

일간 발표되는 트루플레이션 데이터를 월평균으로 재산출

이후 CPI와 비교해보면 약 2개월을 선행하는 특징



자료: Bloomberg, Truflation, 하나증권

1-3. 미국의 선박 재보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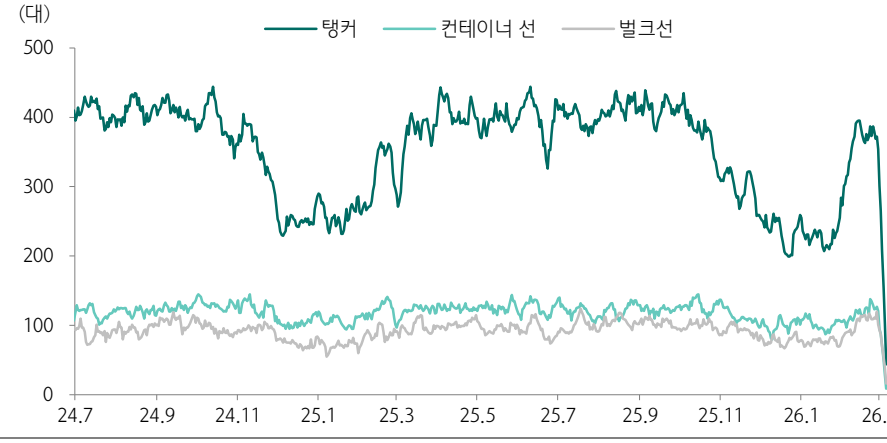
3. WTI 유가 $90 돌파: 미국 정부의 선박 재보험 정책 등 유가 안정 노력에도…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 항복' 요구 등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WTI 가격은 배럴당 $90를 돌파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 보험료가 급등하며 중동에서 출발하는 선박(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들의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 정부는 선박 운항 재개를 위해, 즉 유가 안정을 위해 미 해군 호송과 더불어 '해상 재보험(Maritime Reinsurance)' 계획을 발표했다. 규모는 200억 달러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주요 에너지 선박을 1년 내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는 인도 정유사에게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30일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가 안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전쟁 장기화 리스크가 완화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도표 4. 중동을 통하는 선박 운항 급감

중동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선박 수를 합산한 수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에서 출발하는 선박 수는 크게 급감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1-4. 한국 수출 & 미국 ISM

4. 한국 수출과 미국 ISM 지수: 수출 주도의 성장률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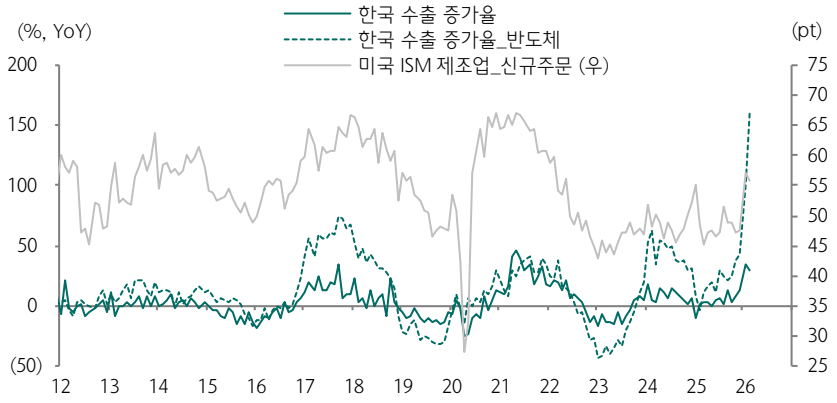
한국의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161% 증가한 252억달러를 기록했다. 범용 DRAM 중심으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IT 부문의 호조가 그 이상으로 호조를 보였다.

최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한국 수출 전망에 긍정적이다. 2월 ISM 제조업 지수가 52.4로 예상(51.7)을 상회했다. 한국 수출 증가율과 밀접한 신규주문 지수는 55.8로 1월(57.1)보다 낮았지만 예상(53.3)보다 높았다. 작년 12월까지 4개월 연속 50pt를 하회 후 2개월 연속 50pt를 훌쩍 상회했다.

도표 5. 한국 수출 증가율과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한국 수출, 반도체 주도로 호조

미국 ISM 신규주문 지수도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자료: LSEG, 하나증권

1-5. 케빈 워시 지명

5. 케빈 워시 공식 지명: 산 넘어 산

지난 4일 백악관이 케빈 워시 지명안을 상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식 인준 절차*가 시작됐다. 역대 연준 의장 사례를 보면, 백악관 공식 지명 후 상원 인준까지 평균 80~100일이 소요됐다. 1979년 폴 볼커 의장의 경우 역대 최단 기간인 8일이 소요된 반면, 2022년 파월 의장 재임 당시에는 170일 넘게 지연됐다. 파월의 의장직 임기 종료가 약 70일이 남은 가운데, 워시가 의장직을 바로 이어가려면 과거보다 신속한 인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톰 틸리스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첫 번째 단계인 은행 위원회 청문회 날짜조차 빠른 시일 내 확정되지 못하면서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인준이 지연될 경우 법적 해석에 따라 파월이 이사직 임기(2028년 1월)를 지속해 나가더라도 의장직은 유지되지 못하고,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의장 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Hearing)→ 투표(Committee Vote) → 본회의 표결(Floor Vote)

역대 연준 의장 인준 사례

공식 지명 후 상원 인준까지
폴 볼커 의장 제외하면
평균 101일 소요

5/15 파월 임기 만료까지
약 70일 가량 남은 상황

도표 6. 역대 연준 의장 인준 사례

의장 이름	대통령 (지명자)	공식 지명 날짜	상원 인준 통과	소요 기간 (일)
폴 볼커	지미 카터	1979-07-25	1979-08-02	8
앨런 그린스펀	로널드 레이건	1987-06-02	1987-08-03	62
벤 버냉키	조지 W. 부시	2005-10-24	2006-01-31	99
재닛 옐런	버락 오바마	2013-10-09	2014-01-06	89
제롬 파월	도널드 트럼프	2017-11-02	2018-01-23	82
제롬 파월 (재임)	조 바이든	2021-11-22	2022-05-12	171
전체 평균				85
볼커 제외 평균				101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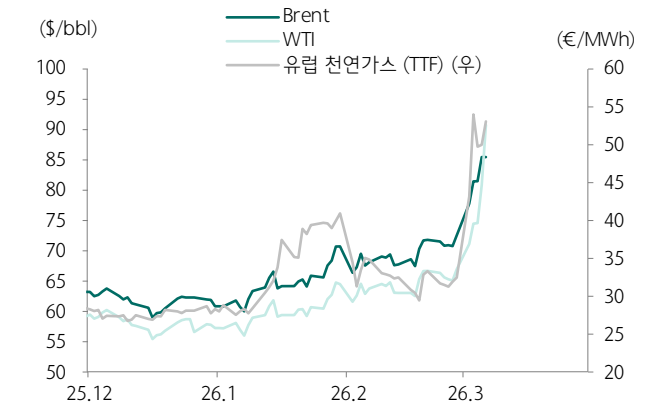
2. 주간 지표 | Weekly Indicators

요즘 반드시 확인하는 일간/주간 지표들을 업데이트합니다.

- **(1) 브렌트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중동 무력 충돌 이후 에너지 가격 충격 점검
  →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모두 급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부 봉쇄,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등 주요 원유 및 LNG 수출국에 대한 타격 등이 원인. 한편 WTI가 Brent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재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2) 미국 크레딧 스프레드:** 사모대출 리스크 확대 등이 채권시장으로 번지는지 여부 확인
  → 미국 HY 회사채 스프레드는 1월말 288bp → 2월말 312bp → 3/6 313bp로 확대. 역사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 그러나 연초부터 사모대출 리스크로 점진적으로 확대. 중동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을 높여 미국 HY 내 에너지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결국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되는 흐름

도표 7. [에너지 가격]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 에너지 가격 급등 지속



자료: LSE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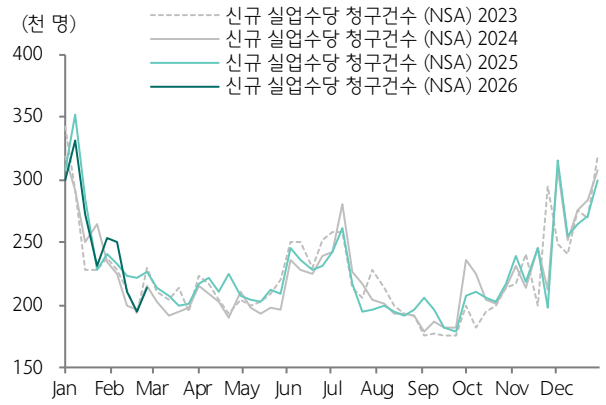
도표 8. [미국 크레딧] 미국 HY 회사채 스프레드
: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점진적으로 확대

자료: FRED, 하나증권

- **(3)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저고용 & 저해고' 중 저해고 추세가 지속되는지 확인
  → 2/28 기준 신규 건수는 213k. 2월 BLS 실업률이 4.4%로 상승했으나, 아직 실업수당 건수에서 해고 급증의 신호는 관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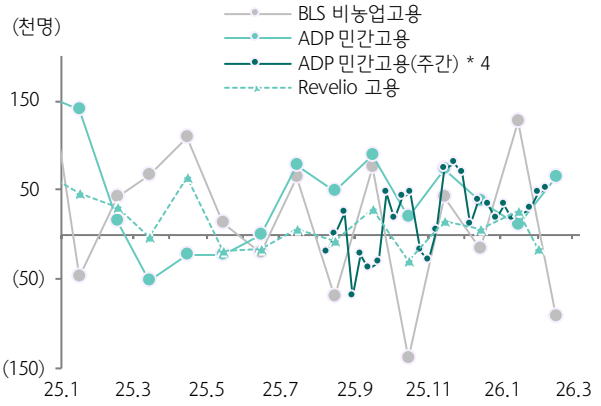
- **(4) 미국 주간 ADP 고용:** 고용 추세를 주간으로 체크
  → 지난주 ADP는 2월 지표 +60k로 발표. 그러나 2월 BLS는 -92k로 급락하여 3개월 평균 +6k를 기록. Revelio 등 다른 민간 지표도 (-) 기록. 완만한 둔화 추세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

도표 9. [미국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해고 증가의 징후는 없음



자료: DoL, LSE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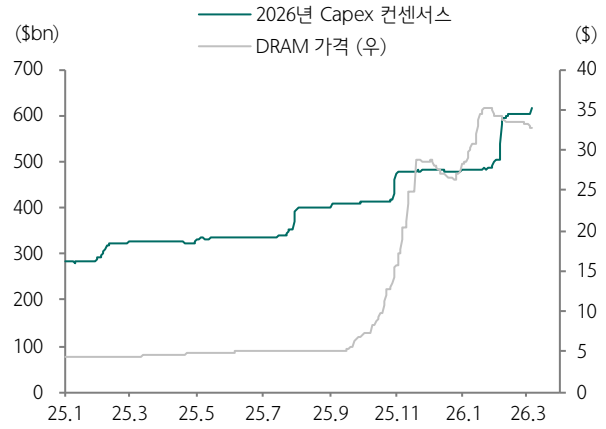
도표 10. [미국 고용] 주간 ADP 고용
: 지난주는 월간 지표 발표. 공식 BLS는 부진



자료: BLS, ADP, Revelio,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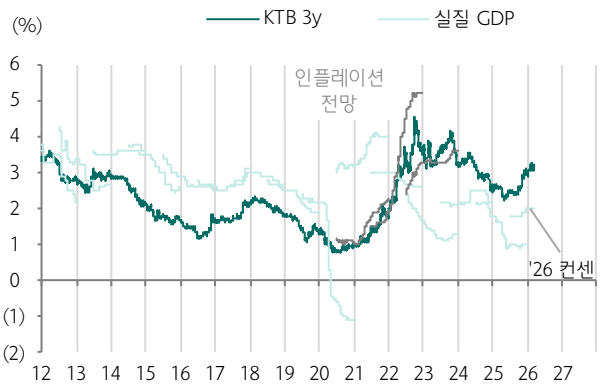
- **(5) AI Capex 및 DRAM 가격**: 글로벌 AI 사이클 및 DRAM 쇼티지 확인
  → Capex 2월 12일 $603bn에서 3월 6일 $618bn으로 소폭 증가. DRAM 가격은 소폭 하락. AI 사이클보다 DRAM 가격 고점이 먼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음
- **(6) 한국 성장률 컨센서스**: 금리가 고점 시그널로 작용할 성장률 전망 '정점'을 확인
  → 2026년 성장률 컨센서스 2.0%. 아직은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은 편

도표 11. [반도체 사이클] 빅테크의 '26 Capex와 DRAM 가격
: Capex 전망 꾸준히 상향



주: 빅테크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4개社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2. [한국 성장률] '26 성장률 컨센서스와 국채 금리
: '26 성장률 컨센서스 상향 추세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3. 인사이트 | Food for Thought

생각할거리를 던져주는 주요 연구/분석 등을 공유합니다.

민간 고용 지표의 신뢰도

민간 기관의 고용 지표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리치몬드 연은 보고서 ('Monthly Job Reports: How Do Private Sources Fare?')에 따르면,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중 ADP 고용이 BLS의 고용(기업대상조사)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지만 정확도는 낮다.

BLS의 기업대상조사는 응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 셧다운 시 공표도 생략된다. 이에 민간 업체가 발표하는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DP 민간 고용*은 BLS의 민간 고용과 2022년 1월 이후 상관계수가 0.798로 Linkup과 Revelio 대비 높았다. 또한 90%의 확률로 BLS 고용과 방향(증가 or 감소)도 같았다.

*ADP는 QCEW가 산출하는 데이터의 약 20%를 활용. QCEW의 산업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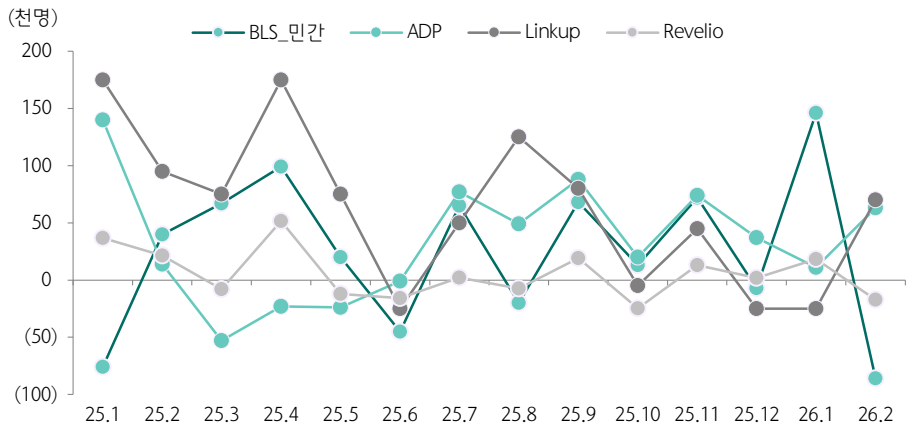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ADP 데이터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2024년 10월과 2025년 10월처럼 두 수치가 크게 달랐던 시기가 있었고, 2025년 하반기에는 세 번이나 일자리 증감 방향성이 상이했다. 수치적 정밀도(Error Margin)를 보면 ADP가 Linkup과 Revelio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BLS의 수치와 오차가 10% 이내인 경우는 16.7%에 불과하며, 25% 이내일 확률은 45.8%로 절반이 채 안된다.

시사점: 민간 데이터가 노동 시장의 방향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고용주 데이터를 포함하는 QCEW(분기별 고용 및 임금 조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BLS의 공식 수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2월에도 ADP는 +63k를, BLS 민간 고용은 -86k로 완전히 상반된 결과였다. 단일 지표보다는 여러 지표들의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월 ADP 고용이 회복해도 Revelio 고용은 (-)인 점도 고려하여 고용 추세가 회복보다 보합 수준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월 BLS의 민간 고용은 -86k를 기록한 반면 ADP는 +63k를 보고

BLS 공식 수치와 민간 데이터 간의 상반된 흐름

도표 13. BLS 공식과 민간 데이터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4. 연준 발언 | Fed Speaks

- 유가 충격을 두고 월러, 마이런, 윌리엄스 등은 그 영향이 지속적이지 않다고 평가. 여전히 고용 둔화에 집중하여 인하 사이클이 유효함을 시사. 반면 해맥 등은 인하와 인상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향후 연준 내 이견 심화될 전망. 다만 결국에는 월러, 윌리엄스 등의 의견에 힘이 실릴 것

도표 14. 미국 FOMC 위원 발언

구분	위원		날짜	발언
연준 이사	파월	★★★	1/29	-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치 상단에 위치. 성장률과 고용 지표가 엇갈릴 때 고용 지표를 더 신뢰 - 하반기 즈음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감소하기 시작
	제퍼슨		2/7	- 당장은 노동시장 개선으로 인하 불필요. AI 생산성 예단하기 이르며 단기적으로 물가 높일 위험도 존재
	보우만	★	**3/7**	**- 2월 고용 데이터를 통해 노동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함을 확인**
	월러	★★★	**3/6**	**- 이란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된다면 인하 고려. Private Credit 이슈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아님**
	마이런	★★	**3/7** 2/19	**- 3월 금리 동결 시 반대표를 던질 것. 유가 상승은 일회성 충격에 그치는 영향** - 고용 개선 및 재화(goods) 물가 오름세 고려 시, 12월(2.25%)보다 9월(2.75%)에 생각한 수준이 적절
	바		2/17	- 인플레이션 둔화 증거 확인 이후 인하 고려. 지금은 동결이 적절
	쿡		2/5	- 노동시장은 균형, 인플레이션은 상방 리스크. 작년 3회 인하가 노동시장을 뒷받침
연은 총재 ('26)	윌리엄스	★★	**3/4**	**- 유가가 상승했지만 극적인 수준 아님. 관세 영향 사라진 후 인플레가 둔화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 필요**
	카시카리	★	**3/4** **2/19**	**- 높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핵심. 이란 전쟁은 금리 경로에 불확실성을 초래** **-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근접. B/S 상당히 축소. 시스템 변화 없이 추가 축소 여부는 불확실**
	로건	★	2/21 2/11	- 대법원 관세 결정 이후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졌음. 연준이 레포 시장 금리를 목표로 삼을 필요 - 노동시장 상당한 약세 없다면 추가 인하 불필요. 지난 6개월 간 고용 증가율이 BEP 수준
	해맥		**3/7**	**- 현 기준금리는 중립에 가깝고, 리스크가 양방향**
	폴슨		1/14	- 현 기준금리는 긴축적.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인하 전망
연은 총재	굴스비	★	**3/7**	**- 유가 충격에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 조성될 것.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데일리		**3/7** 2/17	**- 노동시장 약화와 2%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향후 금리 결정이 어려워질 것** - 올해 1~2회 추가 인하 예상
	바킨		**3/5**	**-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 가질 필요**
	보스틱		2/19	- 2025년 2.2% 성장률은 강한 숫자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연내 동결로 고금리 지속
	슈미트		**3/7**	**- 미국 고령화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 중.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음**
	콜린스		**3/7**	**- 당분간 금리 동결이 적절**
	무살렘		2/26	- 기준금리는 중립에 가까운 수준. 고용과 인플레이션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주: **지난주 발언**은 볼드체
자료: Fed, 언론보도, 하나증권

도표 15. 미국 FOMC 위원 성향

	Dove	Dovish	Neutral	Hawkish	Hawk
이사회	월러 마이런	보우만 (금융감독 부의장)	파월 (의장) 제퍼슨 (부의장) 바	쿡	
연은 총재 (지역, 투표권)		윌리엄스 (뉴욕, 당연직) 폴슨 (필라델피아, '26) 굴스비 (시카고, '27)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27)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26) 콜린스 (보스턴, '28)	로건 (댈러스, '26) 바킨 (리치몬드 '27) 보스틱 (애틀란타 '27)	해맥 (클리블랜드, '26, '28) 슈미트 (캔자스시티, '28)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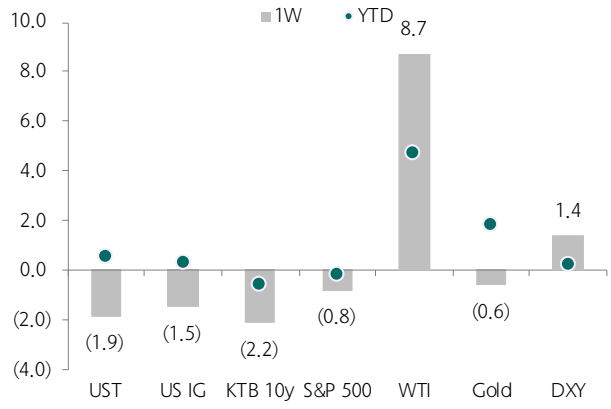
주: 위원들의 주요 임기는 다음과 같음. 파월: 25년 5월 (의장), 28년 1월 (이사), 쿡: 38년 1월, 마이런: 26년 1월 (후임자 확정 전까지 유지 中. 재임명 가능), 보스틱: 26년 2월 28일, 바킨: 28년 1월, 윌리엄스: 28년 6월, 데일리 28년 10월
자료: 하나증권

5. 시장 동향 | Weekly Markets

5-1.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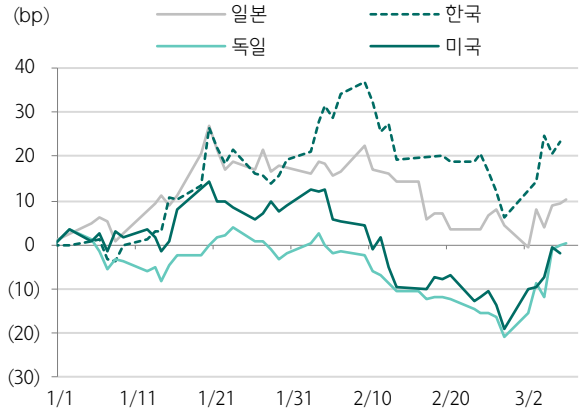
- 유가와 달러화 강세, 그 외 대부분의 자산군은 약세 시현.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마저 하락. 이는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디레버리징이 나타났다는 의미. 미국, 독일 10년 금리는 연초 레벨 수준까지 반등
- 미국 국채 금리는 5년 전후 구간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물보다 중기물 금리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 시장의 올해 연말 연말 SOFR 기대치가 3.25%를 상회. 연내 인하 기대가 1회 초반 수준으로 축소

도표 16. 주요 자산군 위험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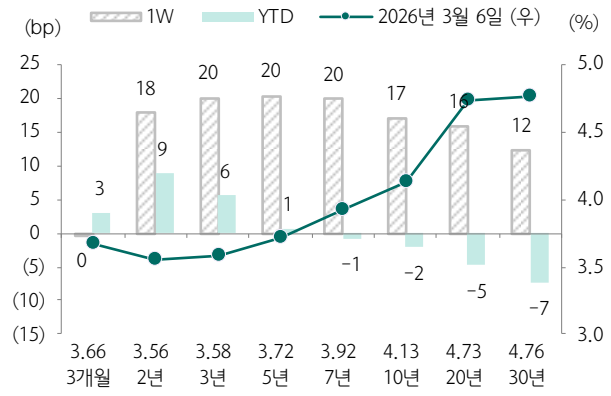
주: 52주 변동성 대비 수익률. HY 투기등급 채권, EMD LC: 신흥국 로컬통화 채권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17. 2026년 주요국 국채 10년 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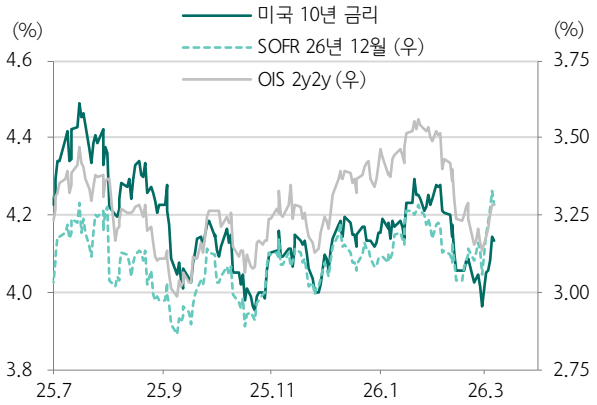
주: 25.12.31=0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18.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19. 미국 국채 10년 금리 및 단기금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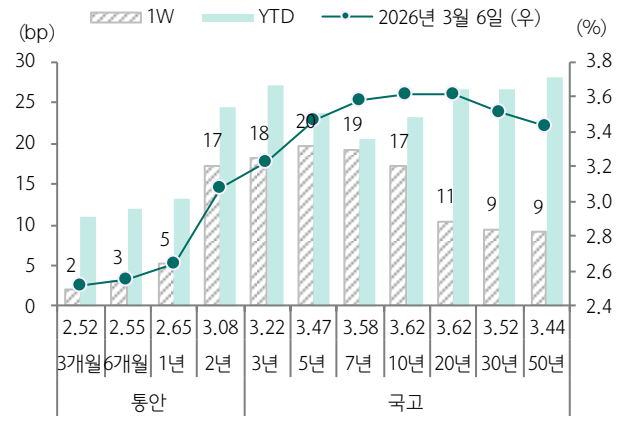


주: SOFR는 내재금리 / 자료: LSEG, 하나증권

5-2.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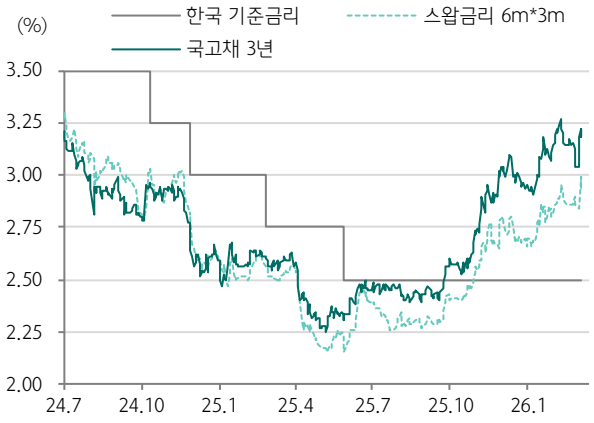
- 한국 국고채 금리는 금통위 직후 안정되었으나 이란 사태로 다시 급등. 미국과 마찬가지로 5년 전후 구간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국고 3년 금리는 3.2%를 다시 상회했으며, 이미 시장금리는 연내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수준. 원유와 LNG 가격 모두 급등하면서 한국의 수입물가 리스크가 확대됐고,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가파르게 회복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주요국 대비 금리 상승 폭이 더 컸음
- 한국 원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2.8% 하락. 달러화 상승 폭은 1.4%이었고, 엔화 가치 하락 폭도 -1.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화 약세 폭이 다시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주가 급락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지난주 약 7조원)가 지속된 영향 등이 작용. 금요일 야간장에서는 1,480원을 상회

도표 20. 한국 통안채(~2년) 및 국고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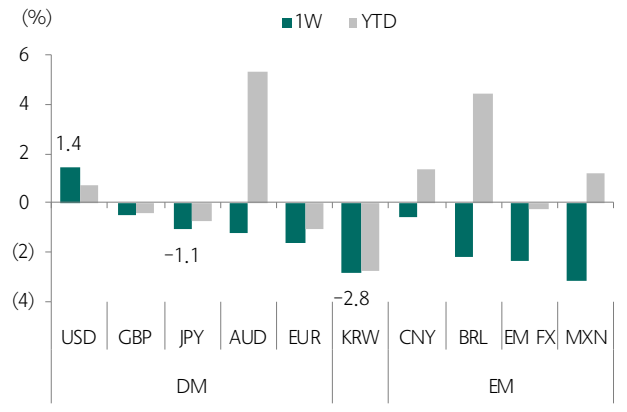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21. 한국 기준금리, 선도스왑,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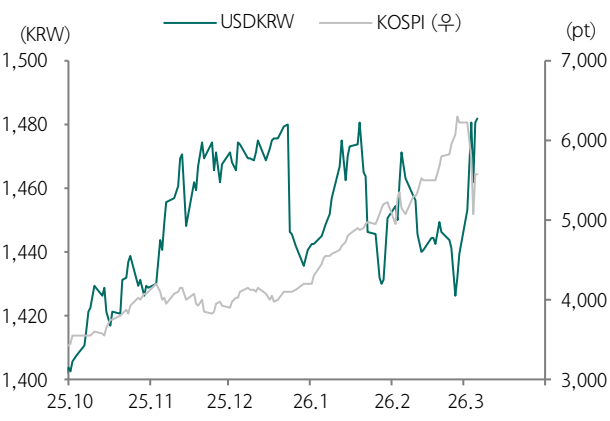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22.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율 (선진/한국/신흥)



주: USD는 달러인덱스, 그 외 USD 대비 변화율
자료: LSEG, 하나증권

도표 23. KOSPI와 USDKRW



자료: LSE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